

“5·18 발포는 사실상 전두환 지시...직보 체계 있었다”

육군 간부 증언...광주·전남 50회 발포 135명 사망·총 사망자 166명
암매장 12구 발굴 유전자 감식 중...코브라 헬기 20mm 발칸포 탄두 발견
'장세동 5·18 당시 광주에 왔었다' 2018년 광주일보 보도 사실로 확인

진상조사위 대국민 보고회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발포는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였다는 증언과 함께 전씨가 공식 보고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박모 차장은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면서 "발포는 보안사 계통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고 5·18진상조사위는 전했다.

조사위는 또한 보안사령부 전 보안처 과장 윤모 씨로부터 "광주시위 상황에 대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하러 갔더니, 이미 광주 상황에 대해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씨가 비공식 지휘 라인을 통해 광주 현장에 있는 계엄군과 연결돼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됐다.

5·18진상조사위는 16일 서울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발포 경위와 발포 책임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의 규모 및 소재 등 6가지 사안으로 발표됐다.

5·18의 핵심의혹은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확인이라는 점에서 발포 책임에 대한 지휘라인의 실제 규명은 가장 중요한 조사로 꼽히고 있다.

조사위는 5·18기간 계엄군에 의한 사망자는 총 166명이며, 부상자는 2600여명으로 집계했다. 광주·전남지역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회의 발포가 있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35명에 달하고 총상 부상자는 최소 300명으로 발표됐다.

당시 상황을 보고해 발포 명령을 승인하는 군 보고체계가 이중으로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신군부 지휘부는 전두환은 공식 지휘라인에서 비껴났다는 증언을 이어오면서 전씨의 책임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육군본부 인사참모 차장과 육군본부의 소위 보안부대장, 보안사의 하위직 간부 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 진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전두환의 2인자로 불리는 장세동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고 1998년 검찰조사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확보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장씨가 '5·18당시 광주에 왔었다' (2018년 5월 15일 자 광주일보 1면)는 사실로 확인됐다.

공식 인정된 행방불명자 78명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해 75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14일 해남에서 발굴한 유골 3구도 5·18 당시 사망자로 추정되고 있어 행방불명자 추적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 242구 중 행방 불명자 염경선씨로 추정된 사례는 가족 중 작은아 버지하고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고, 여동생 두 명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최근 남동생을 확인해 유전자 검사를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헬기 사격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됐다. 조선대 본관 옆 절토지에서 발칸포 탄두를 발견해 5·18 당시 공격헬기 코브라(AH-1J)에서 20mm 발칸포를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5·18진상조사위는 광주 외곽 봉세 작전중 이뤄진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계엄군이 확인 사실을 한 것도 확인했다.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에서 계엄군이 버스 위로 올라가 이미 사망한 민간인들에 대한 확인사실을 했다는 증언, 현장에 있던 계엄군 4명을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다.

최후항쟁자인 옛 전남도청을 유혈진압하는 상무중정작전 당시 육군 진압이 실패하면 헬기로 2차 진압을 하기로 계획한 것도 드러났다. 광주공항에 500MD헬기 8대와 계엄군 7-8명을 태울 수 있는 UH-1H 기동헬기 1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조종사들의 증언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송선대 5·18진상조사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조사기간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 6월에 작성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국가보고서'가 5·18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명예와 존엄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해남서 5·18 암매장 추정 유골 발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예비군훈련장 인근 아산에서 5·18 당시 암매장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3구를 발굴하고 현장을 천으로 덮어놨다(원안).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충북대 인류학과 박선주 교수팀이 16일 오후 발굴된 유골을 현장에서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정신’ 국민통합의 계기로

민주,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 포인트 개헌 당론 발의 추진 5·18기념식서 국힘에 협조 제안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룩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원 포인트 개헌안 발의에 앞서 국민의힘과 공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5월 정신이 극단의 정쟁으로 꼭 막힌 정국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16일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17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룩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안의 당론 발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룩은 지난 대선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어서 큰 이견도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를 기다렸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물꼬를 튼다는 심정으로 원 포인트 개헌안의 당론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포인트 개헌안의

당론 발의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18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장에서라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원 포인트 개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룩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의힘도 크게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서진정책 등 호남에 대한 진정성 확보를 넘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룩 반대' 발언 파문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을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로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을 봉쇄한 점도 원 포인트 개헌 동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이슈가 갖는 무게감에 따라 자칫 잘못했다가는 민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느냐는 정치공학적 셈법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룩에 대한 입장이 제시될 것인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이 말로만 5월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권이 국민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룩에 대한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민주당도 원 포인트 개헌 이슈로 5월 정국을 이끌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여야가 함께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해 국민통합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한편, 협치의 길을 낸다는 것이다. 또 당의 위기 상황에서 5월 정신으로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의미도 담겼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냉랭한 호남 민심의 눈총을 피하기 위한 셈법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거대 야당이지만 여권의 거듭된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돈 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시대와 민심의 높이에 부합하는 혁신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면서 호남 민심의 실망감을 갈수록 커지고 있는 흐름이다. 결국 5월 정신을 매개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 이슈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룩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안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통합을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여야가 차기 총선과 함께 원 포인트 개헌을 이뤄내면서 그래도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5·18 광주에 뽀가 내린다

<비>

전야제 열리는 오늘 한여름 날씨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에는 하루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광주 전역에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피해가 있을 만큼의 양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다.

5·18 전야제를 비롯해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는

17일에는 한낮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따뜻한 남서풍의 유입과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 기온 31도가 예고돼 있다. 5·18 당일에는 더위를 식히는 비와 함께 최고기온은 2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다.

한편 16일 낮 최고기온은 곡성·구례 32도, 광주 31도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여름이 들어섰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 471, 공차중량(kg) : 2355,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